

열악한 에너지 복지 개선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 지원 건의

송성환 도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70%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지방은 수요 특성상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비용이

비싸다. 지방정부마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이나 공급비용 산정시 최소비용 승인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요금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주택 시세 상승 영향을 받는다.

이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높은 분양가로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때 감점평가액 적용 폐기와 분양 시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방 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과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보고 법률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진성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유성열 무소속 의원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용 "우리도 北 못지 않게 미사일 시험... 양적·질적 훨씬 우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다.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가 볼 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관련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는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상중에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나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인지를 검토해 봤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는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한반도 관련국 논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는 유엔 사에서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NLL(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중에 있고, 또 마침 국회에서 어제 감사를 의결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철저히 감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강요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6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별로 152대를 도입,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대상자, 예약방법, 요금 등 운영규정이 상이하고 서비스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그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전라북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복권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약 1년 여간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차 시스템 개발을 병행했다.

또한 구축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3일에 전국 최초

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한 조례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금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하듯이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및 관계자들 모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자 운행하던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 2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미흡사항은 수정·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개최

전북도는 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해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 혁신성장 사

업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자료과 심의 등을 담당하며 위원은 20명으로, 지난해 10월 8일 출범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기획총괄, 산업·경제·농림, 지역개발·환경, 주민자치 분과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능별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

와 자문을 하도록 분과협의회가 있다.

이번에 개최된 포럼에서는 올해 2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등 전북도 2019년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의와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전통 발효식품으로 한국형 K-소스 개발 '박차'

전북도, 식품산업 반도체 소스시장 선점 나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소스산업화센터 본격 가동

전북도가 식품산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소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소스시장 선점에 나선다.

클러스터(중국), 타르타르소스, 스킨라차(인도네시아)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 소스시장은 올해 1,180억 달러(138조원)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스시장도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1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드레싱을 포함한 조미식품, 젓갈 시장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식과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에 비비큐 소스나 굴 소스 등 소스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매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 일본과의 수입·수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 준공과 4회계를 맞이하는 순창 세계발효소스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전통발효 식품을 소재로 하는 한국형 글로벌 K-소스 개발과 육성으로

전통식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제안으로 2016년 농식품부에서 소스산업화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착공한 이후 2019년 11월 1일에 국내 최초의 소스 전문기관으로 개소했다.

장류 등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주 소재로 한국적인 글로벌 소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식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장류 등 전통발효 소재를 활용한 한국형 소스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4대 기업지원시설과 연계해 소스산업의 총괄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 소스·장류기업 제품 연구개발 지원으로전라북도 '아시아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의 새로운 전략 거점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각 국가의 독특한 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소스를 문화적, 산업적 가치로

다양하게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홍보·마케팅 전시 행사로 2016년부터 순창군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날 18~20일 순창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기업전시관 운영을 비롯한 국제포럼 및 '이해정 쉼표'의 쿠킹쇼, 유명 IP인 '하나'의 유튜브 쇼 등 소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순창장류축제와 함께 개최됨으로써 국내 신규시장 개척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장류산업이 소스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프랑스 머스타드와 마요네즈 등과 같이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하는 한국적인 글로벌 K-소스 개발과 육성으로 세계 소스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순창의 전통 장류, 장수·고창 등의 과일류, 부안의 젓갈류 등 다양한 소스의 소재가 풍부한 만큼, 도내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소스 레시피 발굴하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개발로 경쟁력 있는 소스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정읍의 자랑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최소한의 건축양식,
 검소와 청빈의 선비정신이 살아 있는
 무성서원!

최치원의 생사당으로 시작해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학문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천년의 보물!

이제,
 정읍의 자랑 무성서원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합니다.

정읍시
 JEONGEUP-SI

• 국가사적 제166호
 • 소재지 :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무성리 500)